

부모영향요인이 청소년의 인터넷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김년희*

*계명대학교 BK21플러스 지역사회통합인재양성사업단
e-mail:younhee7108@hanmail.net

The Effects of Parental Influence Factors on Adolescents' Internet Over-Dependency: A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Nyeno Hui Kim*

*BK21PLUS Training Center for Social Integration Expert,
Keimyung University

요 약

최근 한국사회는 급속한 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특히 청소년이 우울한 경우 더욱 인터넷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긍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부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우울한 상태에서 인터넷 사용을 과다하게 의존하는 경우 부모영향요인들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영향요인(부모참여, 지도감독, 아동학대)과 우울, 인터넷과의존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부모영향요인(부모참여, 지도감독, 아동학대)이 청소년의 인터넷과의존 간의 작용하는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3차 한국복지패널(KWPS)데이터를 활용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청소년 37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WIN v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영향요인(부모참여, 지도감독, 아동학대)과 우울, 인터넷과의존 간에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가 정적 및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청소년의 부모참여, 지도감독, 아동학대, 우울 및 인터넷과의존 간에 일부를 제외하고 정적 및 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의 지지되었다. 둘째, 부모영향요인 중 부모참여와 인터넷과의존에서 우울은 정적인 매개효과를 가졌고, 부모영향요인 중 지도감독의 경우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영향요인 중 아동학대와 인터넷과의존에서 우울은 정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참여와 인터넷과의존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참여와 인터넷과의존에 대한 β 값은 $-.153$ 로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부모참여와 우울의 β 값은 $-.174$ 로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여기에서 우울과 인터넷과의존에 영향을 줄 때의 β 값은 $.382$ 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부모참여와 인터넷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우울은 정적인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와 인터넷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동학대와 인터넷과의존에 대한 β 값은 $.227$ 로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아동학대와 우울의 β 값은 $.312$ 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여기서 우울이 인터넷과의존에 영향을 줄 때의 β 값은 $.339$ 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아동학대와 인터넷과의존에 대해서 우울은 정적으로 매개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부모영향요인이 청소년의 인터넷과의존에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 2)의 일부지지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부모참여를 향상시키고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